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78회 정례회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의

1차산업 예산 갈수록 감소 “마지노선 붕괴”

농수축경제위원회

10% 처음으로 무너져 9.7% 의원들 “원 지사 시정연설 농어업분야 실현가능 의문”

제주도 전체 예산에서 1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10%대 마저 무너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영호)는 26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과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를 대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날 의원들은 2012년 13.6%에 달하던 제주 전체 예산

대비 1차산업 비율이 내년에 9.7%로 급감한 것에 우려감을 드러냈다.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은 “1차산업 종사자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10%가 무너졌다. 특히 갑골과 축산 관련은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최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시정연설에서 ‘농어업인의 소득과 미래가 커지는 예산’이라고 밝혔는데 이게 실현이 가능한 예산인가”고 따졌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해양수산 부문(24% 감소)보다는 농업 부문은 선방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차산업 예산 비중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민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면 유독 1차산업 분야 미반영 사업이 많다. 전

체 수경가결 및 부결된 사업 비율은 5.9%인데 반해 1차산업은 9.4%”라며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

무분별한 농업용 지하수 이용으로 인한 ‘유수율’ 하락도 문제로 지적됐다. 유수율이란 공급된 물의 총량 가운데 누수된 양을 제외한 실질적인 사용량을 말한다.

조훈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안덕면)은 “제주도 전체 농업용 지하수 관정 916개 가운데 30년 이상 노후 관정이 209개다. 이로 인해 농업용 지하수의 유수율은 38%에 그치고 있다”며 “계량기가 없는 관정도 많아 발주인끼리 순서를 정해 24시간 물을 퍼내는 사례도 확인되고



송영훈 의원 김경학 의원 조훈배 의원

있다. 지하수 보전이나 염분 침투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체 예산 중 1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것은 인정한다. 다만 전년 대비 ‘금액’으로만 보면 300억원 증가한 것”이라며 “농업용 지하수와 관련해서는 현재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만간 개선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ICC제주 개인주 매입 출자 동의안 통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출자규모는 68억1100만원
도, 내년부터 3년간 매입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이하 ICC 제주) 개인주주 주식 매입을 위한 출자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26일 속개한 제378회 제2차 정례회 3차 회의에서 ICC 제주 개인주주 주식 매입을 위해 제주도가 제출한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출자규모는 68억1100만원으로 2020년 28억원, 2021년 20억원, 2022년 20억원 등 3년에 걸쳐 개인주주를 매입하게 된다.

지난 1997년 ICC제주 건립 이후 2018년 말까지 발행된 총 주식수는

약 3772만주(1886억원)이다. 이 가운데 개인주주 3841명이 전체 주식의 3.6%인 약 136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80세 이상이 339명으로 약 9억원 규모이고, 70대 615명(17억), 60대 846명(13억), 60대 미만 1955명(22억)이다.

제주도는 액면가(5000원) 기준으로 총 사업비(취득금액)를 산정했으며, 우선 70대 이상 고령 주식보유자를 대상으로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1997년 ICC제주 설립 당시 도민주체 방식(도민주)으로 건립이 추진되면서 도민들에게 후자사업(면세점, 카지노, 아울렛, 한라산 케이블카 등)을 추진해 배당금 지급을 공약했지만 설립 이후 22년간 배당금 지급은 전무했다. 또 설립 당시 출자자들의 고령화 확대로 출자 주식 반환 요구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 등 개인주주들의 불만이 가중됐다.

오은지기자

“재정상황 열악... 제도개선 논리개발 필요”

행정자치위원회

특별자치추진단 역할 주문
예산편성 적절성 문제 제기

제주도의 재정악화를 대비해 재정관련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위한 논리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를 위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주문됐다.

26일 속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7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3차 회의에서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경기악화에 따른 재정위기에 대비해 “제도개선안에 재정관련 논리개발이 필요한데, 제도개선이 따라야하는 부분이 많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 컨트롤타워를 하는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현 의원은 “균형있게 제주계정이 축소되고 있고, 특행기관이 이전되면서 특행기관 업무를 제주도가 부담하

고 있는 현실 등 문제들이 있다”면서 제도개선과 과제 발굴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를 설득하고, 타 지자체와 경쟁해야 하는 난제인만큼 확실한 근거자료를 통해 제주만의 논리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제주의 안전을 설득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경·추자면)은 제주도가 편성한 내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예산(5억



현길호 의원 좌남수 의원

여원)을 두고 “이 예산 갖고 업무수행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특별지방행정기관 점검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을 지속 요구했지만 “효과 분석 예산도 없다”며 예산 편성 적절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제주관광공사 정상화 자구 노력 부족”

핵심산업 관광예산 감소 지적
관광공사-협회 업무조정 주문

적자에 허덕이는 제주관광공사가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 제주관광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관광부



양영식 의원 박호형 의원

예산 비중 감소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26일 속개한 제378회 제2차 정례회 3차회의에서 관광공사를 대상으로 내년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은 “도 전체 예산이 10.17% 증액됐는데 관광부문에산비중(관광진흥기금 포함)은 1.5%로 전년보다 1.6%보다 감소했다”면서 “제주 핵심산업인 관광산업이 침체하는데 관광비중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 이게 적정인가”라고 질타했다. 특히 투자유치와 예산이 70% 가까이 감소하고 있음을 꼬집었다.

이에 강영돈 제주도 관광국장은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여러 이해관계가 있어 중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오은지기자

원이 2017년 20억원, 2018년 30억원, 2019년 27억원, 내년 55억원”이라며 “운영비 지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양 의원은 “제주관광공사는 앞으로 행정인들로 채워질 게 아니고 (관광)전문가로 채워져야 한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날 문광위 소속 의원들은 제주관광공사와 제주관광협회의 업무조정 필요성도 거듭 주문했다.

이외관련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갑)은 관광 관련 업무 컨트롤타워로 관광청 신설을 제안했다.

이에 강영돈 제주도 관광국장은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여러 이해관계가 있어 중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오은지기자

도두에 집중되는 하수... “분산처리 절실”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 “이미 한계 육박
동·서부처리장 보내야”

도두 하수처리장 현대화(증설) 사업이 늘어나는 하수 발생량을 감안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6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와 도시건설국 등에 대한 2020년 예산안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도에 따르면 도두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무중단 공법’으로 진행된다. 한계에 다다른 하수처리용량을 감안, 기존 시설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증설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안장남 의원(무소속, 제주시 삼양·봉개동)은 “늘어나는 하수 발생량을

감당할 상태로 증설공사가 가능한지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도두로 가는 하수가 최대 처리량인 13만t에 육박하고 있고, 공사가 완료되는 2025년에는 지금보다 하수 발생량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완공될 때까지 월경(동부)이나 판포(서부) 처리장으로 하수를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은 “도두 하수처리장 증설이 완료되는 2025년까지 분산처리가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주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고윤권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안장남 의원 이상봉 의원

“사업을 위탁받은 환경관리공단에서 무중단 공법으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증설 완료 전 물량이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송은범기자

한라산-백두산 학술연구 및 교류협력방안 모색 워크숍

일정: 2019년 11월 28일(목) 오후 2시

장소: 안라수목원 세미나실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주관: 사단법인 제주역사문화진흥원

인사말: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장

좌장: 강만생 제주역사문화진흥원장

주제 발표:

- “한라산과 백두산의 인문-역사 탐색”: 14시10분~14시30분 / 홍기표(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
- “한라-백두 관광접근의 추리”: 14시30분~14시50분 / 장정수(제주대 관광개발학과 교수)
- 백두산(장백산)의 식물 탐사: 14시50분~15시10분 / 김찬수(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
- 백두산(장백산) 남파의 화산지질: 15시10분~15시30분 / 강순석(제주지질연구소장)

휴식: 15시 30분~15시40분

종합토론: 15시40분 ~ 16시30분

진영준(제주대 사학과 교수) 고영석(영투어 대표) 송관필(제주생물자원(주) 대표)

문의: 사단법인 제주역사문화진흥원(726-6425)

국제라이온스협회 354-G(제주)지구 제5지역 합동월례회 및 어울림한마당

국제라이온스협회 354-G(제주)지구 제5지역 합동 월례회 및 어울림한마당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아래

- 일시: 2019년 11월 30일(토) 10시
- 장소: 제주대학교 실내체육관

■주최: 국제라이온스협회 354-G(제주)지구 제5지역

■주관: 국제라이온스협회 354-G(제주)지구 제주한빛라이온스클럽

국제라이온스협회 354-G(제주)지구 제5지역 부 총 재 고봉환L 제5지역 직전부총재 양연호L 제5지역 1지대위원장 김정숙L 제5지역 2지대위원장 김성희L 제5지역 3지대위원장 박종길L 제5지역 총 무 장형숙L

제주중앙라이온스클럽 회장 김인규L 조천라이온스클럽 회장 조성환L 용연라이온스클럽 회장 송관홍L 제주제일라이온스클럽 회장 이송연L 태평중앙라이온스클럽 회장 김필성L 스완스라이온스클럽 회장 박학자L 제주중앙라이온스클럽 회장 오대순L 제주평화라이온스클럽 회장 이우일L 제주한빛라이온스클럽 회장 고형철L 제주올레라이온스클럽 회장 오영은L

전세 렌터카

2018. 12. 17. 제23회 소비자의날 대한민국 소비자만족도 평가 대상 수상

4년동안 타던 차를 반납하면 전세보증금처럼 새차 발매 년 금액을 100% 돌려 받는 새로운 렌터카 서비스 당신의 자산과 가치를 지켜주는 카테크의 시작 전세렌터카로 갈아타세요!

차고지증명제가 필요없습니다 똑같은 자동차 타는 방식으로 자산을 지키자!!

개인, 법인 사업자 경비 처리됨

매월 관리비와 기름값으로 풀옵션 차량을 탈 수 있다. 주행거리 제한 없는 상품. 우리카족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다. 고객의 신용상태 상관없이 이용가능. 무료정비서비스는 S정비업체 사교처리는 S화재 4년마다 원하는 신모텔 차량을 순환으로 탈 수 있다. 4년 뒤 보증금 100% 환불

이전 자동차는 소유가 아니라 편리하고 경제적인 사용의 개념으로 보셔야 할때.

내가 원하는 국내 수입차 전차종 가능...

세금 부담, 정비 부담, 보험 부담, 주행거리 제한

3보험사, 정비, 보험, S정비업체, 자금보증

자동차 렌터카업계의 원가 WONCAR CTS매니저 박종욱 010-9104-4742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신) 一(일) 祚(조)

누수방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매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